21세기 경희의 위상을 위한 제언 〈1〉

전환의 문턱에서 ··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획취재 복지의 '무풍지대' 정책도 오락가락

지난주 목요일 문리대 휴게실. 약 8명의 학생들이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좌석을 잡기고 있다. 날씨가 추운탓인지 제대로 환기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바닥에는 휴지와 먹다버린 음식봉지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고, 오가는 학생들의 표정도 그리 유쾌해 보이진 않는다. 문리대 휴게실의 정원은 48명, 이에반해 학생 1천9백20명. 따라서 휴게실 의자 하나당 학생 40명이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정경대가 휴게실의자 하나당 학생 41명, 사대가 12명, 의약관은 약 40명인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캠퍼스의 휴게실 역시 이런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듯 마땅히 쉴곳이 없다. 교문밖으로 나가자니 몇천원을 호가하는 올림비를 지불해야 하고 그렇다고 학교 휴게실을 이용하자니 담배연기와 음식냄새 그리고 만원사례로 오랫동안 마음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휴게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우리대학의 복지상황은 열악한 상태다. 현대경제학에서도 '여가'의 개념을 보면 '생산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의 개념이 사회전반에 확산 보급돼면서 대학에서도 휴식공간이나 복지매장 등 각종 복지제도 정책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직원·학생 모두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존의 부서에서 독립시키거나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생활협동조합을 설립 그곳에서 대학의 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조합의 경우 대학의 3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 등 모두를 조합원으로 두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설립한다. 그리고 조합은 대학기관과는 분리돼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독립재산제로 운영한 것이다. 현재 대학내에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서울대, 단국대 등 전국 대부분의 국립대학과 조선대, 국민대, 영남대 등의 사립대학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학내의 후생·복지관련 부서가 확대 개편된 형태에는 서울에 위치한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연세대는 교수직원 학생 3자가 공동 참여하는 직영사업 운영위원회를 80년대 초반부터 구성 이곳에서 학내에 위치한 식당 서점 잡화매장 등을 직영하고 있다. 단국대는 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구내의 직영과 임대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홍익대는 후생센터, 건국대는 후생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대학의 복지정책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취업시즌이 되면 그곳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공백이 돼 타대학의 수준에 크게 뒤지고 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직영이 없는 상태에서 2개의 식당과 7곳의 휴게실 그리고 학생회관에 위치한 안경점과 문방구 이발소가 그 전부다. 또한 이들의 계약은 총무과에서, 관리는 학생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데다 갖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 마져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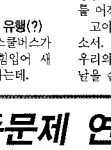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경우 식당과 이발소를 비롯, 생필품점, 레크드점, 서점, 문구점, 컴퓨터점 등의 구내매장을 모두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자들과의 계약은 총무과에서, 관리는 학생처에서 맡는 이중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캠퍼스타운 형성이 여의치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리 풍족하지는 못한 편이다. 우리대학은 전국 최초의 학생회관을 갖는 대학으로 타대학의 부러움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복지의 후진대학으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먼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지 못한 대학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구성원들의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여기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 나가지 못했고 잦은 단이기주의나 단편적인 사고에 밀려 업무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학생들 또한 셀프서비스로 앞겨 있는 상권을 째기위해 현 학생회관 옆에 복지회관을 육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학교당국은 앞으로 복지회관 완공 더불어 대학내 복지수준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하계방학기간중 실무책임자를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한 관계자는 체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교수와 직원에게 개방, 교직원의 복지를 확충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캠퍼스는 이번주중 설무 교수와 직원이 참석한 캠퍼스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 복지정책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생협) 건설준비위원회를 지난 학기에 발족시켜 자판기를 비롯 구내매장을 적영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과 수원 모두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천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않된다. 지난해 복지회관 준공이 몇차례 예산이나 행정력 부족으로 미뤄져야 했다. 대학당국이나 학생 모두가 힘을 한곳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제는 내것을 스스로 지키고 일궈내야 하는 실천의 시기이다. 〈취재부〉

소비조합 건설등 장기 계획 시급



전문가의 말

수원캠퍼스가 이곳 서천리에 자리 잡은지가 올해로 십사년이 되었습니다. 개교 초기의 열악했던 환경 및 복지가 지금은 많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학생회와 학생처가 정기적으로 만나 현재의 복지문제를 개선해가고자 하며, 전년도에는 학교주변의 자취나 하숙생의 편의를 위해 학생식당 옆에 빨래방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또한 학생들의 통학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잠실-학교간의 좌석버스도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이용 학생들의 등교 및 하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의 매장 및 매점의 환경개선이나 제반 문제점을 학생회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서 의 영
〈수원캠퍼스·학생처장〉

우리들의 일그러진 양심

◇…우리들의 일그러진 양심

서천골 학생회관앞에 천연에어콘이 부착된 공중전화대가 설치됐다는 소문에 노트 구 특종감이라 찾아가보니.

어떤 못된 猫頭님께서 모슨 피땀흔 분노가 있었는지 유리창에 대고 울분을 토한 결과라나.

삐죽이 튀어나는 유리조각을 보노라니 노트구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듯 아파오더이다.

◇…동시(童詩)

고황골·서천골 골골마다 동문회, 동아리 홍보벽보가 나날이 풍년이라.

환경지 아저씨, 아주머니의 업무량도 따라서 풍년들겠네.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걸 누가 뭐라나?

철지난 벽보 자진철거 하나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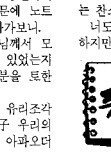
너덜너덜 누구를 기다리는 '노란손수건'일까?

◇…최신 인플레 유행(?)

서천골 신잡행 스쿨버스가 인플레의 유행에 힘입어 새봄의 찬스를 잡았다는데.

여러 물가인상요인으로 요금은 두배가 되었는데 배차시간은 전과 다름없으니 찬스는 찬스인듯.

너도나도 힘든 물가 이해하지만. 가격인상에 따라야 할 서비스 개선을 소홀히 해서야 어디 쓰겠소이까?



◇…미인모새 송환에 부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국가에서 참으로 대견히 견뎌내셨습니다.

자신을 조이는 올가미로 작용한 민족을 끝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늙어버렸지만 앙심좋아 살아온 삶의 가치를 어찌 헤아리리오.

고이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소서. 당신의 고향에서 이니 우리의 고향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나이다.

◇…단 둘일때 좋아(?)

최근 미제 나리님들은 하나도 싫고 셋도 싫고 둘일때가 좋으시다고.

다름아닌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약소국과 단둘이 마주 앉아선 자국 이익에 맞게 으름장을 놓으시기 간편하다는 것.

나리님들, 일대일 방식이 협상하는데 좋다는 건 알지만 여럿 모일때 떳떳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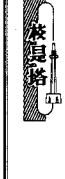
◇…새내기의 변신

고황골에 들어서니 사자한마리 큰 이빨 드러내며 하는 소리 "무관심 하나만 주면 안잡아먹지~"하더라 에라 잇! 먹어라 하고 올라오니

더른 사자한마리 발톱을 드러내며 "비겁하나만 주면 안잡아먹지~"하길래, 에라 잇! 또 먹어랏!하고 비겁둥당건네주고 고황산중턱을 넘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산같은 사자가 어흥하며 "쌍상하나만 주면 안잡아먹지~"하더라. 내속의 오기가 발동해 잇던 절명, 없던 낙담 다 건네주고 나니 아! 이제야 나는 진정한 고황사자가 되어 있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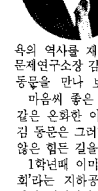
합께하는 자리, 깨어지는 불신



▼신입생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권리와 의무속에서 자신의 자리매김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대학이란 이 거대한 조직속에서 자신이 관단한 최상의 가치대상에 정열을 쏟아 부을 시기가 비로소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에 가득찬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 하나가 더 지워질 것 같다.

▼회계학과에서는 신입생부터 '졸업자격요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졸업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전공 외에도 영어와 컴퓨터에 대한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최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 및 대학원진학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실시하게된 배경이라고 한다. 내규로써 시행할 예정인 이 제도는 졸업전까지 졸업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나 그렇지 못한 경우 졸업을 인정해 줄수 없다는 것이다. 토플이나 토익시험 5백점 이상, 회계학과에서 개설되는 전산과목의 평균성적 80점 이상 또는 컴퓨터 검정시험합격과 회계학과에 관련된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에 합격을 졸업자격의 요건으로 정했다. 이 제도는 재학생들에게도 취업추천,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변학문위기조성과 학과발전에 대한 교수님들의 심사숙고(?)끝에 결정한 사안에, 학생들은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이제도가 학원안정화정책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내용에 관한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와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학생과 교수님들과의 불신의 벽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 학생, 그리고 직원 3자로 이루어진다. 학교와 개개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조화속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졸업자격요건제도'는 학문탐구의 주체인 학생의 자발의지와 교수님들과의 협의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다. 서로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여 성실한 논의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이 필요한 때인것같다.



2사람 지음

반민족문제 연구하는 민족주의자

—김봉우(영문·70년 입학)동문을 만나

최근 '친일파 99人'(돌베개刊)을 펴내청산되지 못한 일제강점시기오욕의 역사를 재 조명한 반민족문제연구소장 김봉우(영문·70) 동문을 만나 보았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온화한 이미지를 풍기는 김 동문은 그러나 결코 순탄치 않은 험든 길을 걸어왔다.

1학년때 이미 '사회과학연구회'라는 지하공부모임을 결성하여 현실인식과 변혁을 위한 험든 길을 내디뎠다.

"당시는 '슬괘트'를 읽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또한, 교내에는 프락치가 활동하고 있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1년을 보낸 김 동문은 교련수업을 거부한 죄(?)로 2학년때 강제징집된다.

"파년한 여동생이 24시간동안 화장실 출입을 금지당했고, 아버지께서 뺨을 맞는 등 가족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땐 인간적인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가시밭길의 인생사를 미소를 지으며 관조적인 서술로 말관하며 민청련, 민통련 등에서 일해온 김 동문은 91년 2월 반민족문제연구소를 개소, '반민족문제' 특히 '친일파의 행적'에 몰두한다. 결과물로서 나온 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친일파 99人'. 이 책에 대한 김 동문의 지부심은 대단하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년저 2천명을 선정한뒤, 2백명으로 줄이고 다시 99명으로 핵심인물들을 압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파 추적이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폭로라면 이 책은 친일거두의 행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정치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사는 삶, 해방된 삶, 주체적인 삶을 소망"한다는 김 동문은 현재 경희 총민주동문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조국에 대한 시랑만큼이나 '경희사랑'도 크다. 〈김중석 記者〉

해방된, 주체적인 삶 소망

74년 전역 후, 본격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김 동문은 군사정권의 끊임없는 탄압을 받게 된다. 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78년에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10·26사태 이후 형이 경정되어 석방, '서울의 봄'을 실감하지만 '불'도 잠시뿐, '계엄포고' 위반으로 붙잡혀 온 이대생을 항소심 공판에서 만나 결혼,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출소 후 근현대사를 공부하며 김 동문은 정권의 부도덕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 대목에선 분노를 표출했다.

절망 속에서의 빛이었을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행복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 김 동문은 법정에서 아내를 처음으로 만난다. 역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붙잡혀 온 이대생을 항소심 공판에서 만나 결혼,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대학공군사관후보 장학생 모집안내

1. 모집정원: ○○명
2. 모집분야: 조종요원
3. 지원자격
 대원인정 국적을 가진자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자
 가. 연령: 만17세이상 24세미거(1969.6.16~1976.6.15)
 나. 학력: 국내 정규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다. 구 인사법 제10조(임용제외 및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4. 구비서류

제1차 응시서류	제2차 응시서류
• 지원서(공군조정서식) …… 1통	• 호적등본및 주민등록등본 …… 2통
• 사직서(공군소정서식) …… 1통	• 재정보증서(공군소정서식) 1통
• 학교성장증명서(입학성적 및 학점, 고교 내신성적) … 각각 1통	• 재정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1통
	•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 1통
• 학교장 추천서(학교서식) … 1통	• 병적증명서 …… 1통
• 사진(3×4cm) …… 3매	• 신원증명서(구, 시, 읍면장 발급) …… 1통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3. 3.8~3.24
 나. 장소

지 구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지 구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서 울	서울 지방병무청	전 북	전북 지방병무청
강 원	춘천 지방병무청	전 남	광주 지방병무청
	강릉 지방병무청	대구, 경북	대구 지방병무청
인천, 경기	수원 지방병무청	부산, 경남	부산 지방병무청
충 북	청주 지방병무청	제 주	제주 지방병무청
충 남	대전 지방병무청		

6. 전형기준

구 분	학업고사	학교생활	고교내신	면 접	계
배 점	200	150	100	50	500
비 율	45%	20%	22%	11%	100%

7. 전형일정

내 용	기 간	장 소	비 고
정밀신검 및 면접	'93.4.7~4.9	항공의학 개정포인트 / 항 및 공군사관학교	인성검사 포함
서 류 전 형	'93.4.10~4.17	공 군 본 부	학력고사 + 학교생활기록 + 고교내신
합격자 발표	'93.5.14	공군 지방병무청	
장학금 지급	'93.5.27	공군본부	

8. 신체검사 결격기준

이 과	치 과	흉 부	이비인후과	신경, 정신
• 시력(교정): 1.0미만 • 색약	• 결손치: 2개 이상	90~1.0kg/cm 차이 / 1인이상	• 지속성고막 천공 • 만성비후염	• 100cm이상 / 162.5cm이하 • 84.7kg이상 / 51kg이하

9. 독특큰히
 - 소총측아: 10년
 - 지원부아: 6년(학우복무기간+경행규 수혜기간)
10. 대우 및 특전
 가. 계학수 대학등급 및 수학보조비 지급
 나. 소정의 과목 이수후 공군 조종장교로 임관
 (선제통 결격사유로 공중근무 불가시 지원분야 근무)
 다. 조종장교 근무시 비행수당 및 훈련비 지급

공 군 본 부

영국 뉴캐슬대 학점교류 교환학생 선발공고

자매교 영국 뉴 캐슬대와의 학점교류 계획에 의거하여 교환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가. 파견대상교: 영국 뉴캐슬대학교
나. 선발인원: 3명
다. 파견기간: 1993.7.1-1994.6.29(1년간)
라. 수강과목: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 과정내의 교과목을 이수한다.
마. 학점인정: 시험, 리포트 등을 통해 지도교수(뉴캐슬대)가 성적을 평가하여 학생 원소속대학으로 통보하고 해당학과에서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바. 비용: 1)학생각자가 원소속대학에 등록금 납입.
 2)항공료 및 숙식비 본인 부담
 (숙식비: 1개월당 2백30 파운드/약30만원)
사. 신청자격: 본교 학부 2,3학년 재학생
아. 제출서류: 1)신청서(소정양식) 1부
 2)건학년 성적증명서 1통
 3)학과장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자. 서류접수기간: 1993.3.15(월)-28일(토)
차. 선발시험: 추후통보
타. 행정사항: 1)교환학생은 출국전(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치고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2)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어학연수를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국제교류위원장

제2학기 교비해외파견 교원 선발공고

1. 신청자격: 본교에 3년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 단, 교내외 학술지원금에 의해 장기(3개월 이상) 해외 연구활동을 하고 귀국한 자 및 교수연구제 수혜자는 만 7년이 경과되어야 함.
2. 선발인원: 3명
3. 파견기간: 1993.9.1-1994.2.28
 (4개월 이상이어야 함)
4. 제출서류: 1)교원교비해외파견 신청서 1부
 2)연구실적서(교무처장 확인)1부
 3)연구계획서 1부
 4)초청장사본 또는 관련증빙서류1부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국제교류부사무국
6. 신청서 접수기간: 1993.3.15(월)-4.17(토)
7. 수혜자의 의무
 1)연구비 수혜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 30일전에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으로부터 공식초청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이 해당기간 중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
 2)연구비 수혜자는 귀국후 2년간 의무봉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연구비 수혜자는 귀국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년 혜택과 중일하게 간주한다.
8. 수혜내용: 수혜자는 왕복항공료와 월 $900씩 4개월분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9. 기타 지세한 사항은 교원 교비 해외연구파견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학술활동 보조금 지급 신청서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국 제 교 류 위 원 장

박물관 정기개관 및 VIDEO상영 안내

중앙박물관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학술자료로서 이용을 돕고자 하여 정기개관을 실시합니다.

1. 개관날자: 1993년 3월16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2. 개관시간: 13:00부터 16:00까지
3. 휴관: 방학과 시험기간중 휴관, 단 휴관시에도 학술자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VIDEO상영
 가. 일시: 개관시
 나. 편수: 하루2편식 상영
 다. 내용: 역사, 민속자료
 라. 장소: 박물관 세미나실
 *원하는 자료 선택해서 볼 수 있음(목록은 박물관 연구실에서 비치)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

중앙박물관 공개강좌 및 관람안내

1. 중앙박물관에서는 국내·외의 역사적 유물과 민속품을 수집, 보관하고 이것들을 전시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관람케하고, 학술연구와 우리 선조의 전통문화와 유물을 이해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시청각기재(화중가,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한 공개강좌와 전연실 개관을 하고자 하여 귀 교수님의 강의시간(교양국사, 문화사)중 원하시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 통보하여 주시면 사전에 준비하여 관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목: 슬라이드, 비디오 상영 및 전연실 관람
 나. 내용: 1)슬라이드: 본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설명
 2)비 디 오: 역사, 민속자료
 다. 장소: 박물관 세미나실 및 전 전연실(도서관4층)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

이월 보충교육 안내

1. 대 상: 교직원 및 학생 예비군으로서 90, 91, 92년도 교육불참자(학교, 지역)
 * 대상자명단은 각대학원 및 단과대학 각 학과 게시
2. 교육일자: 93. 3. 22(월)-3.27(토)
3. 교육장소: 금곡훈련장
4. 출입 및 집결시간: 개인별 출발(금곡교장 운동장) 93. 3. 22. 07시55분까지 도착 완료 할 것
5. 유의사항
 가.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할 것(대리참가 확인)
 나. 교육 중도후퇴 교육 참가 확인증을 필히 받을 것
 다. 개인 승용차는 불허(전연조치)하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할 것
 라. 교통편: 165-3(금곡 교장 직행20분 간격), 165번, 30번 등 청량리-금곡
 마. 기타 문의사항은 연대본부(961-0148, 0149)로 문의

경희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

교 회 안 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를 둔 분들은 본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성가대·교회학교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일아침:1부 9시, 2부 11시
 -주일저녁:일요일 오후 7시
 -삼일저녁:수요일 7시
 -대학 청년부:토요일 오후 5시

성지에서 온 교회